

소프트 파워의 정의

Joseph Nye는 힘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의 반대 개념으로 강제나 강압을 통하지 않고, 매력을 통해 상대방을 유혹하여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힘을 의미한다. Nye의 소프트파워는 크게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정책 범주로 나뉘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핵심 요소는 경제력, 교육, 학문, 예술, 외교 등과, 주관적인 요소로 국가의 국제적 위상 및 역할, 풍습, 다국적 기업의 유치, 국제 공항의 사용 비중 등이 있다. 따라서 소프트파워는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압박과 같이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순응을 얻어내기 위한 간접적인 능력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매혹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Nye는 소프트파워가 강제력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민주주의, 인권, 개방성 등 보편적 가치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유는 소프트파워의 주요 요소는 무형의 자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소프트파워가 영향력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시간에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적용된다. 소프트파워의 핵심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힘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역사

연성권력(Soft Power)의 개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의 정치학자인 Joseph Nye가 1990년 *Bound to Lead*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되어, 2004년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라는 단행본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단행본은 2001년 9.11테러 이후에 미국 부시행정부의 세계 전략에 대한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다. Nye는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에 기반한 패권이 한계점을 강조하며 공공외교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했다.

소프트 파워의 사례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은 무상원조, 자국 대중문화 및 표준지표의 국제적 채택 확산, 정치체제, 인권 등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중국 17차 공산당대회 연설에서 후진타오는 변화한 중국 경제력에 걸맞는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당선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지닌 무기의 위력이나 부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이상, 즉 민주주의, 자유, 기회, 불굴의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츠 게이트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문명인의 도구로서 비군사적 영역인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특히 자유, 평등과 같은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체제를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미국은 소련과 냉전기 중 NATO를 통해 마셜플랜과 같은 경제지원과 인권, 민주주의 같은 정치체제를 통해 소련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그 밖에도 종교적 영향력 역시 소프트 파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1979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르 2세는 폴란드를 방문하여 공산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저항운동을 지원하였고, 1년 뒤 폴란드의 공산체제가 붕괴되었다.